

오겠다는 기업 농친 광주시

전동차제조업체 제1후보지로 광주 꼽고도

땅값 비싸고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적어 정음행

광주시가 철도차량 제조업체 투자 유치에 나섰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전북 정음시에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유치를 공을 들인 해당 기업은 제1후보지로 광주를 꼽아 실시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 규모와 협력업체 여건 등 여러 인프라 측면에서 광주가 정음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투자유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7일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주)다원시스와 전북 정음시 입암면 노령역 인근 철도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투자(300억원)를 약속하는 투자협약식(MOU)을 체결했다. 다원시스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올 연말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6만평 규모의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 건설 및 부품 협력업체를 이전시켜 전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원시스의 투자유치로 300여명의 직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부품협력업체까지 계산하면 15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다원시스는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제작업체로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5000량(6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전동차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를 공장설립 제1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원시스는 3개월 전부터 광주에서 공장 부지를 물색했으며, 광주시는 동구 지원동과 옥동차량기

지, 평동 3차 산업단지 부지 등을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진행중, 지난 8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전북도가 다원시스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북도와 정음시는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다원시스 잡기에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음시장 등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실사단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것은 물론 다원시스 본사를 찾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공장부지 저가 공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원시스의 최종 결정에는 전북이 제공한 파격적인 조건도 영향을 미쳤지만, 도시와 시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주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면,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투자유치 TF를 이끌어 대조를 보였다.

다원시스 대표는 “정음시가 광주에 비해 인력 공급 등의 어려움이 있는 등 투자 조건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북도와 정음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진실한 대화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도 그동안 본사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진 등을 만나 투자여건 및 지원계획을 협의해 왔고, 다원시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땅값이 광주는 평당 90만원, 정음은 평당 5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난데다, 전북도가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비 120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해당 업체가 정음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 초대 사진전

8월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정의화 국회의장 초대 사진전 '정의화의 시선' 전시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활동을 하면서 찍은 인물·풍경사진 등을 윤장현 광주시장 등에게 설명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동서화합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지지 의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 수익금은 네발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부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출장기간 골프치고 유흥업소 출입... 한달에 두번 감찰 적발

장흥군 공직사회 기강해이 도 넘었다

전남도, 사무관 등 3명 전책·감경

장흥군 특정 과 직원들이 한 달에 2차례나 감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 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관이 연루돼 있는 등 이례적인 사례로, 징계를 해야 할 전남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올 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성장흥군수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

는 가운데 장흥군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장흥군청 K사무관 등 3명은 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김포로 1박2일 출장을 간 뒤 일찍 돌아와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K사무관 등의 행적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로 제보가 접수되면서 이들 일행은 골프를 멈추고 장흥으로 돌아갔다. 최근 전남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골프를 친 3명 가운데 1명은 경징계인 견책을, 2명은 표창 감경을 결정했다. 출장비까지 받아 업무를 보는 대신 골프를 친 것 치고는 관대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비용도 자신이 직접 내 충징계를 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사무관은 다시 약 2주 후 부하직

원 5명과 함께 물축제, 2016년 통합의학박람회 등 장흥 이벤트 홍보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를 찾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K사무관 일행이 유성구의 한 유흥업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감찰팀이 덮친 것이다. 이들은 감찰조사에서 “유흥비는 분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달 감찰 내용을 전남도에 이첩했으며, 전남도는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또다른 전남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美에 北 난민 정착 위한 씨앗 뿌린다

나주 연극인 김진호씨 주도

미네소타서 19일 심포지엄

미국 본토에 북한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유로운 거주를 위한 씨앗이 뿌려진다.

유엔 각국은 물론 남미국가들까지 대규모 난민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는 19일 미국 최초로 미네소타 주에서 ‘북한 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북한 난민 인권의 날’이 선포될 예정이다. 국제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난민 자유수호를 위한 미국 미네소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9일 미네소타주립대 험프리 대강당에서 북한 난민들의 미국내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나주출신 연극인 김진호(64·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이사장)씨와 미국 현지 기업가 김현(70·여·미네소타주 거주)가 주도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한미 양쪽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심포지엄에는 전 미국 국무부 차관 에릭 슈워츠(현 오바마대통령 인권특사, 미네소타 주립대 험프리 행정대학원장), 마크 데이튼 주지사, 샌디 패퍼스 상원의원 등 미네소타 주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쪽에서는 5명의 패널이 나선다.

김진호씨가 ‘남북한 문화교류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김창수(코리아재단 연구원장)

씨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평화통일의 방향’, 이상훈(영화감독)씨가 ‘탈북자의 한국 정착상황과 바람직한 탈북자 정착 정책 등에 관해 발제를 한다.

특히, 김진호씨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남북 구성원들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동질감을 지향하는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일의 동력이자 최종점”이라며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날을 ‘북한 난민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USRAP)에 따르면 난민수용수는 연간 7만여명에 달한다. 북한출신 난민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 권법에 의거, 2006년 9명을 처음 받아들이고 2013년까지 186명이 정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진호씨는 지난 1982년 나주에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을 설립, 지금까지 30회가 넘는 무대공연을 펼친 연극인이다. TV드라마 ‘주몽’ ‘허준’ 등에 출연한 탤런트이기도 하다.

서울출신인 김현씨는 6.25 전쟁 당시 패퇴한 가족들과 생이별, 이모의 슬하에서 자라 여군에 입대해 뒤 미 8군 헌병대를 거쳐 32세에 미국 미네소타로 이민했다. 건설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네소타 주립대 동양인 최초의 평의원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 “광주 동구 선거구 없애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8일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 광주시 동구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호남차별을 노골화하는 결과로 농어촌과 지방을 위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논란의 핵심인 농어촌 지역구 의석 수 축소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국민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특히 “광주시에 불어닥친 의석 수 축소 위기는 그 사태의 심각성이 메가톤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호남정치 1번지인 동구가 처한 현실은

호남정치 전체의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또 “지역민의 권리를 대변할 의석수가 축소될 경우 호남정치의 본거지인 광주시의 정치력 약화는 물론 호남의 차별과 지역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부산·울산·대전 등 광주시와 경쟁하는 타 광역시 단위의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광주만 의석 수가 축소될 경우 지역차별이 노골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주시 의원 수 축소를 막기 위한 구간경계조정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수상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상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